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시황/ESG Analyst 이성훈 shl076@kiwoom.com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미중 정상회담 일정 확정, 기술주 반등에 상승 마감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3일(목) 미 증시는 백악관의 미중 정상회담 확정 발표 소식에 무역 긴장감 재차 완화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(+2.5%) 등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선호 심리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(다우 +0.31%, S&P500 +0.58%, 나스닥 +0.89%)

대중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검토 등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재차 유발되었지만, 이 날 백악관의 정상회담 일정 확정 소식(28일 미일 → 29일 한미 → 30일 미중 정상회담)에 힘입어 무역 갈등 불확실성 완화 속 미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.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들과 연방 자금 지원의 대가로 지분 투자를 협상 중이라는 보도에 양자 컴퓨터 등 관련 테마주도 급등하며 기술주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 회복세 연출 (다만, 보도 직후 상무부 측에서는 현재까지 협상 관련 논의가 없다고 언급하며 부인)

금주 들어 미 증시는 주요 이벤트 부재 속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음. 다만, 금일 저녁에 발표될 24일 CPI를 시작으로 빅 이벤트를 일정에 진입. 먼저, 금번 9월 CPI는 헤드라인(YoY 3.1% vs 전월 2.9%), 코어(YoY, 3.1% 전월치 부합) 등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운데 예상치 대비 +0.2%p 상회하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연준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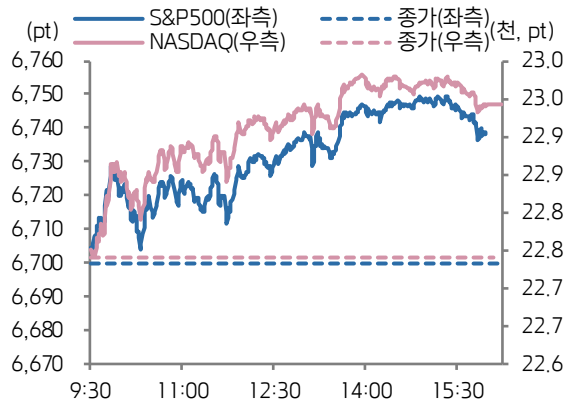
이후 차주부터는 빅테크 실적(29일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/ 30일 아마존, 애플 등), 30일 FOMC, 29~30일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해야하는 구간. 이러한 가운데 큰 틀에서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 + AI 산업 확장 속 실적 전망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함에 따라 해당 이벤트 소화 이후 재차 미 증시는 상승 동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.

한편, M7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(M7, 12개월 선행 EPS 한달 전 대비 +1.5% 상승)가 지속되는 가운데 AI발 모멘텀이 실적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구간. 실제로, 최근 미 정부가 지분 10%를 인수한 인텔이 장 마감 이후 AI 수요에 힘입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(3Q 매출액 136.5억 달러 vs 컨센 131.4억 달러 등)하며 현재 시간 외 7%대 급등 중.

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장중 3,900선 돌파하며 기술적 과열 부담 인식이 누적된 가운데 한미 협상 불확실성 부각 속 원달러 환율이 1,440원까지 급등하며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한 결과 장 후반부 양 지수는 하락 마감 (코스피 -0.98%, 코스닥 -0.8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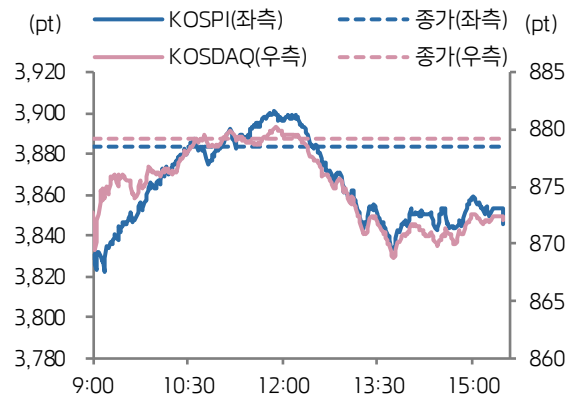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 기술주 반등을 반영하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, 코스피 3,900선 (PBR 1.3배 기준)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차주 예정된 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 속 숨고르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. 한편, 최근 코스피는 단기 기술적 과열 인식 속 외국인, 기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저가 매수 자금 유입이 증시 하단을 지탱해주는 모습. 이처럼, 증시 내 유동성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임을 감안시 중기적인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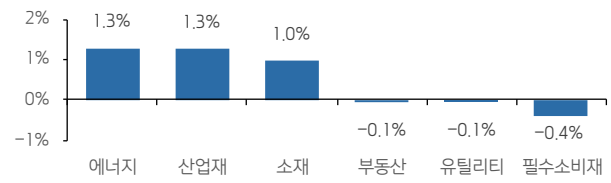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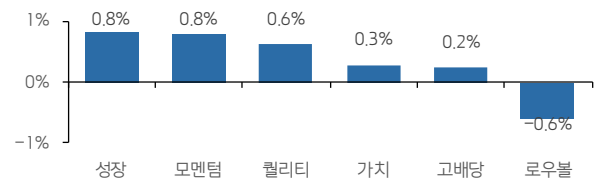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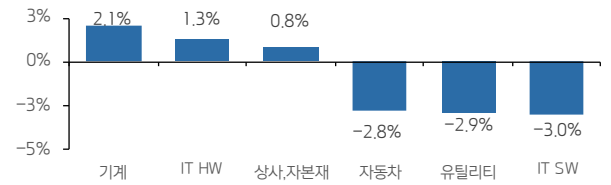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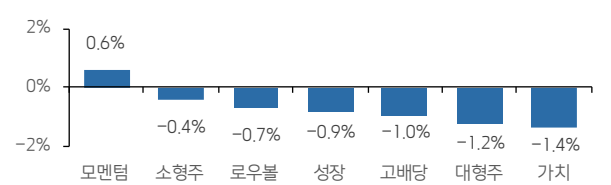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259.58	+0.44%	+4.03%	GM	66.85	-0.68%	+26.54%
마이크로소프트	520.56	+0%	+24.18%	일라이릴리	821.04	+1.06%	+6.99%
알파벳	253.08	+0.55%	+34.13%	월마트	106.86	-0.26%	+19.16%
메타	734.00	+0.08%	+25.65%	JP모건	294.54	+0.15%	+25.47%
아마존	221.09	+1.44%	+0.77%	엑손모빌	115.98	+1.11%	+10.81%
테슬라	448.98	+2.28%	+11.18%	세브론	156.56	+0.64%	+11.85%
엔비디아	182.16	+1.04%	+35.68%	제너럴일렉트릭	106.86	-0.3%	+19.2%
브로드컴	344.29	+1.17%	+49.56%	캐터필러	520.50	+1.28%	+45.65%
AMD	234.99	+2.07%	+94.54%	보잉	217.77	+0.54%	+23.03%
마이크론	206.71	+4.15%	+146.32%	넥스트에라	83.25	+0.5%	+18.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3,845.56	-0.98%	+60.27%	USD/KRW	1,437.40	+0.45%	-2.37%
코스피200	536.37	-1.15%	+68.77%	달러 지수	98.95	+0.05%	-8.79%
코스닥	872.03	-0.81%	+28.58%	EUR/USD	1.16	+0.06%	+12.21%
코스닥150	1,474.59	-1.12%	+30.52%	USD/CNH	7.13	+0%	-2.89%
S&P500	6,738.44	+0.58%	+14.57%	USD/JPY	152.57	+0.39%	-2.95%
NASDAQ	22,941.80	+0.89%	+18.8%	채권시장			
다우	46,734.61	+0.31%	+9.85%		가격	DTD(bp)	YTD(bp)
VIX	17.30	-6.99%	-0.29%	국고채 3년	2.600	+4.5bp	+0.5bp
러셀2000	2,482.66	+1.27%	+11.32%	국고채 10년	2.912	+5.2bp	+4.1bp
필라. 반도체	6,847.39	+2.54%	+37.5%	미국 국채 2년	3.489	+4.4bp	-75.3bp
다우 운송	15,421.02	-1.9%	-2.99%	미국 국채 10년	4.001	+5.2bp	-56.8bp
상해종합	3,922.41	+0.22%	+17.03%	미국 국채 30년	4.579	+4.8bp	-20.3bp
항셍 H	9,300.74	+0.83%	+27.58%	독일 국채 10년	2.583	+2bp	+21.6bp
인도 SENSEX	84,556.40	+0.15%	+8.21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	가격	DTD(%)	YTD(%)
Eurostoxx50	5,668.33	+0.52%	+15.78%	WTI	61.79	+5.62%	-9.39%
MSCI 전세계 지수	995.09	+0.44%	+18.28%	브렌트유	65.99	+5.43%	-11.59%
MSCI DM 지수	4,322.93	-0.43%	+16.59%	금	4,145.60	+1.97%	+49.83%
MSCI EM 지수	1,380.07	-0.26%	+28.32%	은	48.70	+2.15%	+66.55%
MSCI 한국 ETF	90.07	+0.69%	+76.99%	구리	511.05	+2.3%	+26.92%
디지털화폐				BDI	2,092.00	-0.1%	+109.83%
비트코인	109,568.03	+1.74%	+16.92%	옥수수	428.00	+1.18%	-3.55%
이더리움	3,830.97	+1.31%	+14.48%	밀	513.00	+1.84%	-14.29%
				대두	1,062.00	+1.14%	+2.73%
				커피	410.15	-2.54%	+41.7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0월 2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